Symphony No. 1 in B♭ minor

- □□

정보

개요
곡명: Symphony No. 1 in B♭ minor 작곡가: William Walton (1902–1983) 장르: 4악장 관현악 교향곡
작곡 시기: 1932–1935년 (일부 목록은 1931–1935년으로 표기) 초연: 1934년 12월 3일 Queen’s Hall에서 London Symphony Orchestra와 Sir Hamilton Harty가 제 1–3악장 초연, 1935년 11월 6일 같은 홀에서
BBC Symphony Orchestra와 Harty가 전곡 초연 헌정: Baroness Imma von Doernberg 소요 시간: 약 43 분, 판본과 템포에 따라 약 41–46분 악장: I. Allegro assai, II. Presto con malizia, III. Andante con

malinconia, IV. Maestoso–Allegro, brioso ed ardentemente–Vivacissimo–Maestoso IMSLP: William

Walton 작품 목록 Wikipedia: Symphony No. 1

William Walton의 Symphony No. 1 in B♭ minor는 1932년 무렵 시작해 1935년에 완성한 4악장 관현악 교향곡이다 . 대상은 전곡이며, 제 1–3악장만 공개된 1934년 공연과 피날레까지 갖춘 1935년 전곡 초연을
함께 다룬다. 네 악장은 Allegro assai, Presto con malizia, Andante con malinconia, Maestoso–Allegro, brioso ed ardentemente–Vivacissimo–Maestoso 순서로 배열된다.

두 초연으로 나뉜 완성 과정

Sir Hamilton Harty는 Hallé Orchestra를 이끌던 시기에 Walton에게 대규모 교향곡을 요청했고, London Symphony Orchestra와의 초연 약속이 작곡의 일정과 맞물렸다. Hyperion의 프로그램 노트는 Walton이 스위스 Ascona에서 작업했으며 1932년 여름에 곡을 시작한 것으로 설명한다. BIS 해설서와 일부 작품 목록은 1931–1935년으로 적으므로, 시작 연도는 자료에 따라 한 해 차이가 난다.

1933년 여름까지 앞의 세 악장과 피날레의 상당 부분이 마련되었지만 , 마지막 악장의 완성은 늦어졌다. Walton은 1934년에 영화 Escape Me Never의 음악을 쓰면서 교향곡 작업을 중단했고, 피날레를 위한 여러 구상을 다시 검토했다. Hyperion과 AllMusic은 작곡가 Constant Lambert가 푸가를 시도해 보라고
제안했다는 후대 기록을 전하며, 이 제안이 피날레의 대위적 추진과 연결된다고 설명한다.

1934년 12월 3일 Queen’s Hall에서 Harty와 London Symphony Orchestra는 제 1–3악장만 먼저 연주했다. 이 공연은 피날레가 완성되기 전의 공개 연주였고, 1935년 4월에는 Malcolm Sargent와 London Philharmonic Orchestra가 같은 3악장판을 다시 무대에 올렸다. 피날레는 1935년 8월 말에 완성되었으며 , 1935년 11월 6일 같은 Queen’s Hall에서 Harty와 BBC Symphony Orchestra가 전곡을 초연했다.

출판 정보와 자료

Oxford University Press 1936 . Walton Trust 1951 , 1968 , 1998 David Lloyd-Jones William Walton Edition . .

Herbert Murrill 1937 Oxford University Press . Walton Trust André Leclair *Salome* 1971 Antwerp Royal Flemish Opera House , .

Walton Trust 43 . BIS 41 , Walton Trust 40–51 . 41–46 , 1 14–15 , 2 6–7 , 3 10–12 , 4 11–13 .

.

- : 2 Flutes(2 Flute Piccolo), 2 Oboes, 2 Clarinets(B♭ A), 2 Bassoons
- : 4 Horns, 3 Trumpets in C, 3 Trombones, Tuba
- : Timpani(2), Cymbals, Side drum, Tam-tam
- : Violins I·II, Violas, Cellos, Double basses

Timpani 1 , Cymbals·Side drum·Tam-tam , , Walton Trust .

I	*Allegro assai*	14–15	B♭ , , ,
II	*Presto con malizia*	6–7	
III	*Andante con malinconia*	10–12	··
IV	*Maestoso–Allegro, brioso ed ardentemente–Vivacissimo–Maestoso*	11–13	, , , ,

I. Allegro assai

Walton Trust는 제 1악장을 670마디로 기록한다. Hyperion의 해설에 따르면 시작은 B♭ 팀파니의 지속음, 호른 화음, 현악의 맥동하는 크레셴도, 오보에 반복음이 겹치며 형성된다. AllMusic과 MusicWeb은 작은 리듬 세포와 긴 페달이 소나타 구조 전체를 지탱하고, 주제가 금관 ·현악 ·목관 사이를 옮겨 다니며 불협화와 절정을 쌓는다고 분석한다.

이 악장의 긴장은 짧은 동기가 반복되고 변형되는 과정에서 커진다. 낮은 지속음과 관현악의 응답은 악장
안에서 여러 차례 모습을 바꾸며, Walton이 전통적인 소나타 틀을 집요한 누적으로 확장한 방식을 드러낸다.

II. Presto con malizia

이탈리아어 표제 con malizia는 ‘악의를 품고 ’라는 뜻이다. 제 2악장은 빠른 스케르초로 진행하면서 3박자 감각에 불규칙한 강세와 비틀린 악센트를 끼워 넣고, 짧은 관악 제스처와 신경질적인 현악 반복으로 제 1악장의 긴 압력을 더 짧은 리듬으로 바꾼다.

Stravinsky 또는 Prokofiev와의 비교는 1930년대 평론가들이 제시한 참조점으로 , Walton의 독자적인 영국적 리듬과 금관 색채를 함께 드러낸다. 악장은 갑작스러운 정지와 짧은 마무리로 끝나며, 그 여운이 다음 느린 악장으로 이어진다.

III. Andante con malinconia

Andante con malinconia는 ‘우울하게 ’라는 성격을 표제에 명시한 느린 악장이다. Hyperion은 솔로 플루트의 황량한 선율, 솔로 클라리넷과 피치카토 현악이 만드는 두 번째 주제를 이 악장의 중심 재료로 설명한다. 긴 선율과 가라앉는 음향은 앞선 두 악장의 공격적 리듬이 멈춘 자리에 고독과 상실의 정서를 드러낸다.

이 선율은 처음에는 제 1악장에 놓일 구상으로 검토되었다가 현재의 느린 악장으로 옮겨졌다는 기록이 있다. 선율의 이동은 제 3악장이 교향곡 전체에서 정서적 중심을 맡게 된 작곡 과정을 보여 준다. 큰 절정 뒤 소리가 가라앉고 플루트의 잔향이 남으면서, 피날레의 장중한 진입을 위한 간격이 생긴다.

IV. Maestoso–Allegro, brioso ed

ardentemente–Vivacissimo–Maestoso

피날레는 장중한 Maestoso로 시작해 Allegro, brioso ed ardentemente의 빠르고 열정적인 구간으로 넘어간다. 중간의 푸가는 앞서 나온 동기를 대위적으로 결합하고, Vivacissimo가 속도를 높인 뒤 처음의 Maestoso 재료가 돌아온다.

금관과 현악이 만드는 코랄풍 화음, 두 명의 Timpani, 추가 타악기는 마지막 코다의 공적 규모를 키운다. 푸가는 앞선 리듬과 동기를 한데 엮어 피날레를 밀어 가는 작법이며, 마지막 장중함은 세 악장의 압력을 교향곡적 결말로 모은다.

피날레의 위치와 초기 수용

1934년 3월에서 런던 퀸즈 홀에서 열린 초연 실황 녹음으로, 당시 지휘자 및 연주자 중 다수가 생존해 있었다. Hyperion은 이 음반을 4장의 CD에 수록하여 발매하였으며, Walton 전문 음반사로서 이 작품을 중요한 기념비적 음반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이 음반은 이 작품의 초연 당시 연주 방식을 재현하려는 시도로 주목받았다.

Walton의 대부 겸 후원자였던 Imma von Doernberg가 이 작품의 헌정자이자 초연 지휘자였으며, 그녀의 생전 마지막 녹음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 음반은 그녀의 지휘 스타일을 보여주는 유일한 녹음으로 평가받으며, 템포 설정과 리듬 처리에서 현대 지휘자들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녹음 배경

William Walton Trust는 이 음반을 Sibelius와 Beethoven 교향곡 녹음 사이에 끼워 넣어 제작하였다. *The Independent*는 MusicWeb의 2000년대 초 Stravinsky·Prokofiev 녹음 시리즈와 함께 Walton 녹음 역시 이 음반사의 대표적 성과로 꼽았다.

Walton Trust는 1935년 11월 런던 퀸즈 홀에서 12월 Harty가 London Symphony Orchestra를 지휘한 초연 실황 녹음을 보유하고 있다. BIS 음반은 Walton Trust가 보유한 40분 분량의 초연 실황 녹음 중 50분 분량을 수록하였다. 이 녹음은 이 작품의 템포 설정과 리듬 처리에서 현대 지휘자들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1930년대 중반 Walton은 이 작품을 Schoenberg와 Britten 등 동시대 작곡가들의 작품과 함께 연주하였다. 이 음반은 이 작품의 초연 당시 연주 방식을 재현하려는 시도로 주목받았다.

참고 문헌

- William Walton Trust, *Symphony No. 1 for Orchestra*: 악보 및 연주 지침, 초판 및 개정판 비교, 편집자 주석.
- Hyperion Records 음반 해설서: Harty의 지휘 스타일, Ascona 호수 배경, 초연 당시 연주자 명단, Constant Lambert의 피아노 협연 관련 기록.
- William Walton Trust 공식 웹사이트: 작품 연혁 및 Sibelius·Beethoven 녹음 일정.
- BIS, Walton Symphonies booklet: 녹음 장소 및 일시, 편집 방식, 마스터링 과정.
- MusicWeb International 음반 리뷰: 템포 설정 및 리듬 처리 분석, 비교 음반 목록.
- The Independent, “First among equals”: 3대 교향곡 녹음 시리즈 평가, Sibelius·Stravinsky·Prokofiev 녹음 비교.
- AllMusic 음반 정보: 녹음 일시 및 장소, 발매 이력, 수록곡 목록.